

성서윤리학자로서 요한 웨슬리 (John Wesley)를 재조명하기*

- 그의 산상설교를 중심으로

강안일 (성결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요한 웨슬리에게 성서윤리란 무엇인가?

III. 요한 웨슬리의 성서윤리 방법론

1. 문자적 - 영적(체험) 통합 해석
2. 규범과 실존의 통합 해석
3. 율법과 복음의 창조적 통합 해석
4. 사변형적 해석
5. 윤리적 이상과 실천 가능성 해석

IV. 요한 웨슬리의 성서윤리의 특징

1. 은총 중심의 윤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2. 내면성의 급진화 - 하나님의 형상 이룸
3. “영원한 지혜자로서” 예수를 통한 완전 성화의 지향
4. 윤리 형성의 사회적-공동체적 구조
5. 종말론적 긴장 - 미래에 근거하여 현재를 변형하는 행위
6. 경건, 행복 추구 그리고 윤리의 통합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5.07>

* 이 논문은 2026년 4월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게재를 위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 ABSTRACT •

**Reconsidering John Wesley as a Biblical Ethicist:
A Study Centered on His Interpreta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Assistant Prof. Kang, An Il (Sungkyul University)

This article reconsiders John Wesley as a “biblical ethicist” who interprets ethical reality through Scripture and shapes both the mode of existence of believers and the communal life of the church. Focusing in particular on his thirteen consecutive sermons on the Sermon on the Mount in Matthew 5-7 (Standard Sermons 21-33), the study analyzes Wesley’s understanding of biblical ethics, his methodological approach, and its distinctive features. In doing so, it highlights the perspective that Scripture should not be regarded merely as a “catalogue of ethical norms,” but rather as the testimony to an event that constitutes the entirety of human existence within the structure of the gospel. From this perspective, rereading Wesley as a biblical ethicist within the context of the Korean church offers an opportunity to move beyond a reductive use of Scripture as an ethical instrument. Instead, it invites a renewed theological imagination that discerns how the gospel reconfigures the life of the church and the existence of believers. Such a recovery, moreover, may overcome the long-standing divisions that have separated ethics from salvation, interior faith from concrete practice, and the individual from the community. Ultimately, it points toward the church’s public witness that embodies the life of the Kingdom of God within the present reality of the world.

Key words: John Wesley, Biblical Ethics, the Sermon on the Mount, Ethics, Korean Church

I. 들어가는 말

성서는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기독교 윤리에 있어 핵심적인 원천이다. 그러나 성서와 윤리의 관계는 단순히 규범 명령을 추출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으며, 적용적, 역사 맥락적, 신학적 접근 등 다양한 방법론과 관심 지평 속에서 다층적으로 전개되어 왔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성서 안에 독자적인 윤리 사유가 존재하는가’, 혹은 ‘성서의 개별 본문이 현대 사회의 윤리적 담론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등의 물음은 여전히 학문적으로 개방된 과제이다.²⁾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이나 ‘윤리’라는 개념은 성서 시대의 개념 체계와 동일하지 않으며, 성서는 현대적 의미의 윤리학 체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³⁾ 따라서 성서윤리 연구는 미리 설정된 윤리 개념의 틀에 따라 본문을 분류 또는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서 텍스트가 지닌 고유한 신학적, 실천적 구조를 해석학적으로 규명하고, 그것을 현대 윤리 담론과의 관계 속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요구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웨슬리를 오늘날 성서윤리학자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웨슬리는 성서를 단순한 교리적 권위나 도덕 명령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성서 본문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행위, 구원과 성결,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지속

1) Ruben Zimmermann, "How to Read Biblical Texts Ethically: The New Method of Implicit Ethics for Analyzing Biblical Ethics," in *Key Approaches Biblical Eth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ed. Volker Rabens, Jacqueline Grey and Mariam Kamell Kovalishyn (Leiden and Boston: Brill, 2021), 15-20.

2) Markus Zehnder, "Reading Biblical Texts Ethically: A Discussion of Ruben Zimmermann's Method of 'Implicit Ethics' from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in *Key Approaches Biblical Eth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ed. Volker Rabens, Jacqueline Grey and Mariam Kamell Kovalishyn (Leiden and Boston: Brill, 2021), 50-64.

3) Johannes Fischer, "Die Bedeutung der Bibel für die Theologische Ethik,"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 55(2011), 262-273.

적으로 해석하였다. 그의 설교는 성서 해석과 윤리적 형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서윤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고 수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에 대한 연구는 특별한 학문적 의미를 지닌다.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윤리의 강조점은 오래되었다.⁴⁾ 웨슬리는 단순한 경건 운동가가 아니라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으로써 성서에 근거한 윤리 사유를 전개한 성서 윤리학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 비록 그가 성서윤리 대한 체계적인 논문이나 책을 저술하지 않았고, 그가 신학할 때 선호하는 설교들이 대부분이지만,⁶⁾ 알베르트 아우틀러(Albert Outler)가 웨슬리 전집 200주년 기념판 제1권 산상수훈 설교에 대한 해설에서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설교를 “그리스도교 윤리의 주요한 요약”⁷⁾으로 규정한 것처럼, 산상수훈의 13편의 설교는 웨슬리 신학의 윤리적 구조를 가장 밀도 있게 드러내는 텍스트로 이해될 수 있다.⁸⁾ 이 연속 설교는 주석적 작업을 통해 복음의 본질, 인간의 내적

4) 박창훈, 『존 웨슬리, 역사비평으로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7.

5) 웨슬리의 성서 이해를 위해 Robert W. Wall, “Wesley as Biblical Interpreter,”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Wesley*, ed. Randy L. Maddox and Jason E. Vic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13-128; John R. Tyson, *The Way of the Wesleys. A Short Introduction*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4), 1-15. 등을 참고하라.

6) Robert W. Wall, “Wesley as Biblical Interpreter,” 114; 박창훈, 『존 웨슬리, 역사비평으로 읽기』, 114. “웨슬리가 총체적인 조직신학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웨슬리의 설교를 읽어야만 당시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적인 주제들과 생각들 그리고 목회적인 해석과 적용을 이해할 수 있다.”; 웨슬리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위해서는 정인교, “설교자로서의 웨슬리와 그의 설교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의 현대적 이해』 (과주: 공감마을, 2018), 303-335를 참고하라.

7)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s 1-4, Sermons, ed. Albert Outl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466-469; 박창훈, 『존 웨슬리, 사회비평으로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29-133.

8) 토마스 C. 오든은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를 이렇게 평가한다. “신학 윤리에 대한

변형, 행위와 동기의 관계, 사랑과 완전성(Perfection)⁹⁾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웨슬리의 성서윤리학을 탐구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에게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 교훈의 집합이 아니라, 은총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총체적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이런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를 학자들은

웨슬리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산상설교에 대한 열세편의 교육적 설교다.” Thomas C. Oden, *John Wesley's Teachings 4, Ethics and Society*, 장성결 역,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4. 윤리와 사회』 (부천: 웨슬리르네상스, 2020), 312; 김영택, “존 웨슬리의 인간학 - 하나님의 형상과 도덕법,” 『신학과 선교』 38(2011), 39-65. “웨슬리에게 있어서 도덕법의 표준모범은 십계명과 산상수훈이었다.”

- 9) John Wesley/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69-326. 이후 산상수훈 설교 13편의 설교를 표시할 때 “산상설교 1”과 같이 함. 산상설교 1, I, 01, 75. “진정한 기독교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이 팔복에 기록된 순서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원문은 웨슬리의 ‘기독교 완전’ 교리가 성서를 읽고 교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의 핵심 해석학적 원리(primary hermeneutic)였다고 주장한다. Mildred Bangs Wynkoop, “A Hermeneutical Approach to John Wesle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6.1(1971), 13-22.
- 10) 이선희는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 13편을 연구하면서, 이 설교는 “믿음으로 칭의 및 중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니라, 말하자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니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의미의 복음적 윤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로 가는 길, 그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는 길, ...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참된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왕도’를 가르치는 구원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논문을 작성한다. 이 논증을 위해 마틴 호네커의 주장을 내세워 “산상수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으로 보는 것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편향적 입장”이라는 근거를 세운다. 이선희, “John Wesley의 산상수훈 설교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37(2013), 249-282; Martin Honecker, *Einführung in die theologische Ethik*, 오희천 역, 『신학윤리학』 (서울: 종문회사, 2024), 415-448; 그러나 이선희가 말하는 것처럼 웨슬리가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신 것”을 근거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를 도외시키는 구원론만을 말하는 것으로 축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웨슬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칭의 신앙의 열매요, ‘복음적 윤리’이기 때문이다.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4. 윤리와 사회』, 312; 그리고 웨슬리도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와 동시에 산상설교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실행을 권고하는 말씀으로 끝맺었습니다.” 산상설교 1, 서론, 10, 75; “우리의 내적 성결을 어떻게 외적 행동으로 표현할까 하는 문제를 보이셨습니다.” 산상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 왔으나¹¹⁾, 이를 성서윤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웨슬리 전집 제1권 산상수훈 설교 13편을,¹²⁾ 2006년 한국웨슬리학회에서 출판한 『웨슬리 선교 전집』 제2권 설교 21부터 설교 33까지를 중심으로 웨슬리를 성서윤리학자로 재조명하고자 한다.¹³⁾ 여기서 “성서윤리학자”란 단순히 성서 본문을 인용하는 설교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서 본문을 통해 윤리적 현실을 해석하고, 인간 행위의 동기와 구조를 분석하며, 공동체의 삶을 형성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상가를 의미한다.¹⁴⁾ 웨슬리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성서운

설교 3, II, 01, 117; 또한 “모든 교리는 그 경험적인 국면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윤리적인 표현도 가진다. 하나님도 인격이고, 인간도 인격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관계는 윤리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지배적인 음조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 헌신인데,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서 근본적인 원리가 된다.” H. Orton Wiley and Paul T. Culbertso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전성용 역, 『웨슬리안 조직신학』 (파주: 세북, 2016), 409; 또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웨버는 이렇게 말한다. “요한 웨슬리의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Theodore R. Weber, *Politics in the Order of Salvation. Transforming Wesleyan Political Ethic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409.

11) 정계현,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에 나타난 마음의 종교에 대한 연구-목회상담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97(2025), 333-357; 김상기,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에 나타난 성품 윤리-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4(2022), 153-194; 이선희, “John Wesley의 산상수훈 설교에 관한 연구,” 249-282.

12)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469-698. 산상설교 설교는 웨슬리가 1739년 4월 브리스톨(Bristol)에서 야외설교를 시작한 이후 계속 이어가며 약 10년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13) John Wesley/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69-326.

14) “신약 성경의 저작들은 단순히 완성된 신학적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맥락 속에서 신학을 수행하는 과정, 즉 문화를 수용하고 청중에게 복음을 새롭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대 해석자들이 직면한 과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메시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신학을 수행하는 과정)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것이다. 신약의 사도들과 신학자들이 특정한 역사적,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복음을 구체화한 맥락화 작업은 비록 그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매우 다를지라도, 현대의 맥락적 신학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

리학자이다. 그의 설교는 본문에 대한 해석적 설명을 통해, 본문이 현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윤리적 실재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준다.¹⁵⁾ 웨슬리에게 산상수훈은 단지 예수의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종교(Religion of the Heart)”에 대한 선언이며¹⁶⁾, 내적 성향과 외적 행위의 통일을 요구하는 윤리적 계시이다.¹⁷⁾ 그는 반복적으로 외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나, 반대로 내적 경건만을 강조하는 신비주의를 모두 비판한다. 산상수훈은 인간 존재의 전 영역을 변형시키는 총체적 은총의 선언이며, 웨슬리는 이를 통해 윤리와 구원을 분리하지 않는다. 즉, 의롭다 하심(칭의)과 거룩하게 하심(성결, 성화)은 분리될 수 없으며,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⁸⁾ 이것은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윤리가 존재론적 차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윤리는 단지 행위의 원칙이 아니라,¹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다.²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의에

기이자 모델이 될 수 있다.” Volker Rabens, “The Bible and Ethics: Pathways for Dialogue,” *In die Skriflig* 51(2017), 4. <https://doi.org/10.4102/ids.v51i3.2246>.

15) “존 웨슬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기독교 윤리에 필수적인 모든 것을 산상설교에서 다루셨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유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하고도 복된 삶의 윤리적 기초다.”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4. 윤리와 사회』, 313.

16) D. Stephen Long, *John Wesley's Moral Theology. The Quest for God and Goodness* (Nashville: Kingswood Books, 2005), 143.

17) 산상설교 13, III, 12, 325-326; 산상설교 5, IV, 13, 175.

18) 마르쿠바르트는 웨슬리 사회 윤리적 장점을 언급하면서 개인적인 신앙과 사회적 활동을 관계를 이렇게 평가한다. “개인에게 새로운 정제 의식과 자기 자신의 가치 의식을 갖도록 도우면서 감리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출발점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관계망을 벗어나서 교회 영역에서만 존재할 수 없고, 비기독교적인 영향이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을 자기의 정체성을 증언하고 확인하는 장(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Manfred Marquardt, *Praxis und Prinzipien der Sozialethik John Wesleys*, 조경철 역, 『존 웨슬리의 사회윤리』 (서울: 보문출판사, 1992), 237-238.

19) 산상설교 1, I, 01, 75.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도덕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론을 선포한다.²¹⁾ 웨슬리는 이를 인간의 내적 변형과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구체화한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웨슬리의 산상설교를 하나의 성서윤리학적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웨슬리의 성서윤리를 “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며 발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나 “그의 삶과 신학을 함께 연구하는” 통시적 관점이 아니라 산상설교 13편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²²⁾ 이를 위해 먼저 웨슬리의 산상설교에서 성서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II), 이어서 그 설교에 나타난 성서윤리 방법론을 분석한다(III). 그 후 웨슬리의 성서윤리의 특징들을 정리할 것이다(IV). 마지막으로 산상수훈 13편에 드러난 그의 성서윤리적 관점이 한국 교회에 주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V).

II. 요한 웨슬리에게 성서윤리란 무엇인가?

요한 웨슬리에게 ‘성서윤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서 안에 윤리가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해보자. “성서 안에 윤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윤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이다.²³⁾ 만일 윤리를 ‘보편적 도덕 원리의 체계’, ‘합리적 행위 규칙의 집합’,

20) 산상설교 2, II, 04, 98.

21) 산상설교 2, 서론, 07-08, 92.

22) 웨슬리 신학을 연구할 때 바람직한 방법론 10가지를 제시한 허천희,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30-41를 참고하라; 웨슬리는 산상설교 여러분 곳에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나 교회적인 상황들을 언급한다. 산상설교 2, III, 18, 107-108. 여기서는 주로 전쟁문제를 다룬다; 산상설교 8, 서론, 23-28, 238-243. 여기서는 주로 불의한 재물에 대해 다룬다.

23) Ruben Zimmermann, “The ‘Implicit Ethics’ of New Testament Writings: A Draft

혹은 ‘규범 명령’의 목록으로 이해한다면, 성서는 그러한 의미의 윤리학 저작이 아니다. 성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²⁴⁾이나 칸트의 『실천이성비판』²⁵⁾과 같은 체계적 규범 이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성서는 철학적 개념 정의를 통해 행위 규범을 정식화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그에 대한 증언을 담은 신앙 공동체의 문서이다.²⁶⁾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질문 자체가 잘못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를 살펴보면, 성서는 윤리를 “포함”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인간 존재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사건의 증언임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성서 안에 윤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성서가 새로운 삶의 질서와 존재 방식을 창출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웨슬리에게서 성서윤리는 별도의 부록이 아니라, 복음의 구조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존적 형식이다.²⁸⁾ 이러한

on a New Methodology for Analysing New Testament Ethics,” *Neotestamentica* 43,2(2009), 399-423.

24)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7).

25) Immanuel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 (파주: 아카넷, 2024).

26) 산상설교 1, I, 09, 80;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4. 윤리와 사회』, 324-326.

27) 산상설교 13, 서론, 01, 312.

28) 산상설교 5, III, 09, 164; 산상설교 10, 27, 282; 김영일은 “웨슬리에게 개인의 내적 신앙의 확신을 외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생활화로 표출하고, 그래서 사회적 참여로 실현하였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사회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성화의 실증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일, “웨슬리의 신학윤리와 현대목회,” 협성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과 오늘의 교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7), 139-154, 특히 151; Thorsten Dietz, Tobias Faix, *Transformative Ethik. Wege zum Leben. Einführung in eine Ethik zum Selberdenk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sgesellschaft GmbH, 2021), 143; Gary T. Meadors, *Four Views on Moving beyond the Bible to Theology*, 윤석인 역,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125. 대니얼 도리아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서사가 근본적이고 윤리가 파생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은 웨슬리의 산상수훈 해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마태복음 5-7장을 “그리스도교 윤리의 주요한 요약”²⁹⁾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을 도덕 강령으로 축소하지 않는다.³⁰⁾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과 삶의 형식에 대한 총체적 묘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구조이다.³¹⁾ 따라서 웨슬리에게 성서윤리는 성서 안에 고정된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재라고 할 수 있다.³²⁾ “그가 참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생명이며,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귀를 가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같이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이며, 의를 갈망하는 자의 의의 내용입니다.”³³⁾

29) 산상설교 1, 해설, 69.

30) 산상설교 1, I, 01, 75.

31) 산상설교 1, I, 13, 83; 산상설교 3, I, 01, 110; 산상설교 4, II, 02, 140; 산상설교 4, III, 02, 143; 산상설교 10, 서론, 27, 282; H. Orton Wiley and Paul T. Culbertson, 『웨슬리안 조직신학』 408.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그 본질의 참된 내면 지향성은 영의 태도 안에 제시된다. 그런데 이 영의 태도는 사고, 감정 및 의지가 말씀과 행위 안에서 그 최상의 표현을 발견한다. 예수의 진술은 특정한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성품의 유형에 관한 것이다.”

32) 웨슬리는 산상설교에서 “종교의 전체”라고 평가한 “황금률”을 포함하여 “규범”(ru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사용한다. 산상설교 10, 서론, 01, 04, 268-269; 산상설교 10, 서론, 23-27, 280-282; Clodovis Boff, *Theology and Praxis: Epistemological Foundations* (Maryknoll: Orbis, 1987), 149; Volker Rabens, “Inspiring Ethics: A Hermeneutical Model for the Dialogue between Biblical Texts and Contemporary Ethics,” in *Key Approaches Biblical Eth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ed. Volker Rabens, Jacqueline Grey and Mariam Kamell Kovalishyn (Leiden and Boston: Brill, 2021), 80-126에서 재인용.

33) 산상설교 2, II, 04, 98.

III. 요한 웨슬리의 성서윤리 방법론

웨슬리에게 성서윤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서 본문 외부에서 구성된 철학적 체계가 성서에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성서 자체가 지닌 복음의 구조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다.³⁴⁾ 따라서 그의 윤리 이해는 곧 그의 성서 해석 방법과 직결된다.³⁵⁾ 특히 산상수훈 설교는 웨슬리의 해석학적 태도와 윤리 형성 방식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장이다. 그래서 다음에서 성서 해석에서 중요한 방식들을 통해 그의 성서윤리 방법론을 몇 가지로 살펴볼 것이다.

1. 문자적 - 영적(체험) 통합 해석

웨슬리는 성서를 철저히 역사적 문맥 안에서 읽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말씀으로 수용한다.³⁶⁾ 그

34) 산상설교 1, 서론, 06, 73; 김상기는 웨슬리의 산상수훈이 “하나님 내러티브”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상기,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에 나타난 성품 윤리-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189; John Wesley/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5권, “불법의 신비,” 316; John R. Tyson, *The Way of the Wesleys*, 4.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이 지닌 내적 논리로부터 성서를 읽는다.”; Thorsten Dietz, Tobias Faix, *Transformative Ethik*, 86-87; “성경은 개별 본문과 단락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본문들이 상호 연결될 때 비로소 성경 윤리가 오늘날의 윤리적 삶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Volker Rabens, “The Bible and Ethics: Pathways for dialogue,” 8.

35) 산상설교 5, I, 04, 156; Thomas C. Oden, *John Wesley's Teachings I, God and Providence*, 장기영 역,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1. 하나님과 섭리』 (부천: 웨슬리르네상스, 2021), 117; Jan van der Watt, “Reading the New Testament from an Ethical Perspective: A Comprehensive Approach,” in *Key Approaches Biblical Eth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ed. Volker Rabens, Jacqueline Grey and Mariam Kamell Kovalishyn (Leiden and Boston: Brill, 2021), 290, 315(288-323).

36) 조종남, 『요한 웨슬레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12), 90. “웨슬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한 성서의 객관적 권위를 주장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는 알레고리적 비약을 경계하지만, 문자주의적 축소 또한 거부한다. 오히려 따르면, 웨슬리는 성서를 해석할 때 늘 사용한 방식으로, 즉 ‘신앙의 유비’(analogia fidei) 방법을 통해 “성서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는 성서”이며, “성서의 한 본문이 다른 본문의 의미를 밝혀주기에, 우리는 일평생 성서를 공부하면서 신앙이 온전해져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³⁷⁾ 웨슬리는 특별히 산상수훈을 해석하면서 그 본문이 특정한 1세기 청중을 향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이 단지 역사적 기록으로 머무르지 않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³⁸⁾ 이러한 태도는 그의 성서관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웨슬리는 성서를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충분한 계시”로 이해하였다.³⁹⁾ 그러나 그는 성서를 윤리적 규범의 단순한 저장소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증언이며, 그 구원으로 인간의 삶 전체를 변형시키는 실재라고 한다. 따라서 윤리는 본문 속에 외적으로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서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⁴⁰⁾ 이는 조종남의 주장대로, “웨슬레는 하나님의 영감의 일회성과 아울러 계속적 영감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성 곧 구속적 만남에서 본질적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

역동성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웨슬레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에 의하여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재성에 그 중요성을 둔 것이다”; 또한 웨슬리 성서해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홍성혁, “존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실천적 원리와 실제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 56(2017), 195-221를 참고하라.

37)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1. 하나님과 섭리』, 115.

38) 산상설교 1, 서론, 06. 73;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웨슬리신학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조종남 박사의 소논문들』 (서울: 선교햇불, 2022), 17-19.

39) 조종남, 『요한 웨슬레 신학』, 87;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웨슬리신학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조종남 박사의 소논문들』, 12-13.

40) 산상설교의 전반적인 해석이 곧 윤리적 특징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상설교 11, 서론, 27, 282.

다.”⁴¹⁾ 이것은 오든이 성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든은 이것을 “사도적 전통에 의해 확증된 성서”, “은혜로 조명된 이성”, 그리고 “성서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인의 성령 체험”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든에게 웨슬리 신학방법론을 이해하는 길이다.⁴²⁾

2. 규범과 실존의 통합 해석

웨슬리의 방법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규범적 진술과 실존적 적용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상수훈 설교에서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지 외적 행위의 금지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는 분노와 경멸, 미움까지도 동일한 윤리적 범주에 포함시킨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 주님은 살인 문제에서 이것이 외부의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고 다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까지도, 비록 그것이 외적으로 포악한 말이나 격분된 언사로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⁴³⁾ 이는 단순히 계명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겨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해석이다.⁴⁴⁾ 그리고 웨슬리가 “가장 뚜렷하고 공정한 행동의 규범”이라고 언급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도 규범과 실존의 조화를 볼 수 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경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부터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떤 시기, 어떤 정황 아래서나 늘 필요

41) 조종남, 『요한 웨슬레 신학』, 90.

42)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1. 하나님과 섭리』, 110.

43) 산상설교 2, 서론, 07-08. 92-93.

44) 산상설교 2, 서론, 05. 91.

합니다.”⁴⁵⁾ 그리고 웨슬리가 “인생의 대헌장이며 자비와 공의의 황금률”에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라”고 하면서 실존적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⁴⁶⁾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웨슬리가 이 본문들을 추상적 교리 체계로 환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언제나 본문이 신자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묻는다.⁴⁷⁾ 그러나 그 구현은 외부에서 첨가되는 ‘응용’이 아니라, 본문 자체가 요구하는 실존적 귀결이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의 방법론은 본문-해석-적용의 단계를 기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해석 자체가 이미 윤리적 요청을 내포하고 있다.⁴⁸⁾

3. 율법과 복음의 창조적 통합 해석

웨슬리는 산상수훈 해석에서 로즈(Stanley J. Rodas)가 “해석학적 전제의 본질”⁴⁹⁾이라고 언급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창조적인 긴장 안에서 통합한다.⁵⁰⁾ 웨슬리는 예수의 계명들을(그리스도의 법) 단순히 새로운

45) 산상설교 10, 서론, 04-05. 269-270.

46) 산상설교 10, 서론, 22. 280.

47) “웨슬리의 중심적인 질문은 ‘무엇을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인가와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자신을 형성했던 전통적인 신학에로 돌아왔다. 두 번째 질문에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지적 사회적 도덕적 풍토에 대한 인식을 계발하였다. 웨슬리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가운데 균형성과 통전성을 이룩함으로써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Randy L. Maddox, *Rethinking Wesley's Theology*, 이후정 역, 『웨슬리 신학 다시 보기』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0), 47.

48) 산상설교 3, II, 04, 118; 산상설교 2, 서론, 07, 92. 웨슬리는 여기서 분노를 동일한 도덕 범주에 포함시키며, 계명을 내면화한다. 이것은 단순 설명이 아니라 즉각적 자기 성찰과 행위를 요구하는 해석 구조이다.

49) Stanley J. Rodas, *From Faith to Faith. John Wesley's Covenant Theology and the Way of Salvation*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3), 81.

50) 산상설교 5, 해설. 153. 웨슬리는 율법과 복음 관계를 ‘산상설교 5’에서 주로 다룬다; 이에 대한 해설을 위해서는 윤철원,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 20과 신약학의 성찰,” 서울

율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웨슬리에 따르면 예수가 가르친 종교는 “태초부터 있던 종교”⁵¹⁾였기 때문이다. 예수가 와서 한 것은 “그 율법을 내신 분 주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인간들에게 그 율법 각 분야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해석을 주시고 동시에 이 율법이 변경될 수 없으며 세상 끝 날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충분히 설명도 안 되었고 충분히 이해도 안 되었”다는 것이다.⁵²⁾ 그러기에 예수의 가르침을 율법 폐기의 선언으로 볼 수 없다.⁵³⁾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이해한다. 여기서 말하는 완성은 폐기가 아니라, 내면화, 명확화 그리고 충만화이다.⁵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율법이 폐기되는지, 율법이 존립하기 위하여 복음이 폐기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이 둘은 잘 조화됩니다. 같은 말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요, 저렇게 보면 복음이 됩니다.”⁵⁵⁾ 이처럼 웨슬리는 율법의 도덕적 요구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산상수훈의 요구를 철저히 현실적이며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인간의 자율적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선행)은총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하다.⁵⁶⁾ 따라서 그의 방

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의 현대적 이해』 (파주: 공감마을, 2018), 98-125를 참고하라.; 김영택은 이런 웨슬리의 창조적인 통합을 “양극성(bipolar)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양자택일(either/or)의 방법론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창조적으로 아우르는 양자종합(both/and)의 방법론”이라고 말한다. 김영택, 『웨슬리신학과 사중복음』 (용인: 코디엠, 2021), 35.

51) 산상설교 5, I, 04, 156.

52) 산상설교 5, I, 04, 156.

53) 산상설교 5, I, 01-02, 154-155. 웨슬리는 “의식 절차를 다루는 법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폐기”되었고, “도덕법만은 주님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설교했다.

54) 산상설교 5, I, 01-04, 153-156; Martin Schmidt, *Christsein als Ganzes. John Wesley Leben und Werk*, Bd. 3 (Zürich: Gotthelf Verlag, 1988), 40.

55) 산상설교 5, II, 02, 157; 산상설교 7, 서론, 01, 198.

56)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4. 윤리와 사회』, 386. “웨슬리의 복음적 윤리는 구원의 역사에서 비롯된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

법론은 율법적 엄격성과 복음적 은총을 동시에 유지한다. “율법과 복음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율법은 복음을 인도하며 복음을 지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은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도와 줍니다. ...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는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고 온유 겸손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 즉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율법의 의를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⁵⁷⁾

4. 사변형적 해석

웨슬리는 흔히 “웨슬리 사변형(Wesleyan Quadrilateral)”⁵⁸⁾로 요약되는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의 통합적 구조 속에서 그의 성서윤리를 전개한다.⁵⁹⁾ 물론 이 개념은 후대의 정식화이지만, 그의 설교를 분석하면 이러한 통합적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산상수훈 해석에서 그는 교부 전통과 종교개혁 전통을 참고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다.⁶⁰⁾ 웨슬리는 성서 자체를 최종 권위로 두되, 전통을 해석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⁶¹⁾ 오히려 성서의 명령이 비이성

의 용서에 기초한다.”

57) 산상설교 5, II, 03, 158.

58) Donald A. D. Thorsen, *The Wesleyan Quadrilateral* (Lexington: Emeth Press, 2005), 5-6; 정계현, “웨슬리의 사변형과 목회상담,” 『목회와 상담』 38(2022), 266-292; 오성욱, “존 웨슬리의 사변형 원리와 맥클렌돈의 침례교 비전의 대화 — 북미 감리교와 침례교의 신학 방법론과 강조점을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49(2017), 135-167; 홍성욱, “존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실천적 원리와 실제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 56(2017), 195-221.

59)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1. 하나님과 섭리』, 109-238를 참고하라.; 산상설교 7, II, 06, 206; 산상설교 8, 서론, 03, 223.

60) 산상설교 3, III, 05-06, 123-125; 이를 위해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신학 vs 웨슬리 신학』 (부천: 웨슬리르네상스, 2019)를 참고하라.

적이지 않음을 강조한다.⁶²⁾ 그러나 이성만 계시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계시를 이해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경험 또한 중요하다. 웨슬리는 구제에 대한 말씀 해석에서 자기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으니, 즉 내가 하는 선행을 숨기지 않고 나타냄으로 자신이 좀 더 격려를 받아 선을 더 행할 의욕이 고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거나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남이 모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⁶³⁾ 그리고 웨슬리는 신자의 체험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삶의 변화가 성서 진리의 실제성을 확인한다고 본다. “일상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이 충분히 강하게 그리고 부인할 수 없도록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른 논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⁶⁴⁾ 그러나 경험과 체험은 성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경험은 언제나 성서의 빛 아래에서 평가되어야 한다.⁶⁵⁾ 이처럼 웨슬리의 성서윤리는 성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전통, 이성 그리고 체험을 통합적으로 강조되고

61) 산상설교 1, II, 07, 87; 산상설교 4, II, 07, 142; 산상설교 5, IV, 12, 173; 산상설교 12, I, 01, 297.

62) 산상설교 5, IV, 07, 169; 산상설교 5, IV, 12, 173; Robert W. Wall, “Wesley as Biblical Interpreter,” 116.

63) 산상설교 6, I, 04, 181; 이 외에도 경험에 대한 진술은 많다, 산상설교 4, III, 06-08, 146-149.

64) 산상설교 8, 서론, 20, 235-236; 아마도 이런 경험과 강조는 웨슬리의 설교가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되다보니, 야외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적이나 기적들에 자신도 놀라고, 그 현상에 대해 성서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강조점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허천희,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 397.

65) 산상설교 2, 서론, 02, 90; 산상설교 2, 서론, 03, 90; 산상설교 3, III, 05-06, 124-125; 산상설교 4, III, 08, 149; 산상설교 7, III, 01, 212; 산상설교 8, 서론, 03, 223; 산상설교 8, 서론, 20, 235; 조종남, 『요한 웨슬레 신학』, 92-106.

있다.

5. 윤리적 이상과 실천 가능성 해석

웨슬리 방법론의 핵심은 산상수훈의 윤리적 이상을 현실 불가능한 이상으로 해석하지 않는 데 있다. 웨슬리는 산상설교 처음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 중 어떤 부분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만 어떤 부분은 사도들이나 초대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기독교 선생들에게만 관계되는 것이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반인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⁶⁶⁾ 오히려 웨슬리에 따르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가 전해 주신 대로의 이 종교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기독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종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화상입니다.”⁶⁷⁾ 웨슬리는 예수의 계명(가르침)을 단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간주한다. 이 점에서 그는 종교개혁 전통의 일부 해석과 거리를 둔다. 장기영은 율법의 본성과 결과에 대한 루터와 웨슬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웨슬리에게 “율법은 타락한 죄인은 정죄하지만, 구원의 결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롬 12:2)하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이런 이유로 웨슬리는 율법의 효과에 루터가 주장한 죄인의 정죄라는 부정적 효과만이 아니라, 신자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포함시켰다.”⁶⁸⁾ 웨슬리에 따

66) 산상설교 1, 서론, 05, 72.

67) 산상설교 3, IV, 130.

68)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신학 vs 웨슬리 신학』, 154.

르면 인간은 전적타락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⁶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계명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말씀으로만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말씀이 된다. 매닥스는 이런 것이 웨슬리의 실천신학적 신학의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실천신학은 복음과 삶을 함께 결합하는 것,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표현하도록 하는 것, 은혜로운 기독교적 삶을 구성하는 것 등을 가리키는 단순한 명칭이었다. 이런 까닭에, 웨슬리에게는 추상적이고 독립적인 조직화된 신학적 탐구에 눈 돌릴 시간이 거의 없었다. 웨슬리는 신학적 자기성찰 그 자체나 혹은 단지 체계적인 완전성을 위한 신학의 세련화에는 관심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의 선포에 있었다.”⁷⁰⁾ 웨슬리는 이런 점에서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강조한다. 그에게 윤리적 완전성은 즉각적 성취 측면보다는 은총 안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무게를 둔다.⁷¹⁾ 모든 성결의 은혜가 순간적인가 점진적인가를 질문하면서 성결의 은혜는 “순간적으로 심겨지는 씨앗”이며, “순간적 성결 전후의 점진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⁷²⁾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지정하신 일반적인 은

69) 산상설교 1, I, 06, 78; 웨슬리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Kenneth J. Collins, *Scripture Way of Salvation: the Heart of John Wesley's Theology*, 장기영 역, 『성경적 구원의 길. 존 웨슬리 신학의 정수』 (서울: 웨슬리르네상스, 2023), 46-54를 참고하라.

70) Randy L. Maddox, 『웨슬리 신학 다시보기』, 46; 김영택, 『웨슬리신학과 사중복음』, 33-35.

71) 산상설교 1, I, 13, 83; 산상설교 3, II, 06, 118-119; Kenneth J. Collins, 『성경적 구원의 길. 존 웨슬리 신학의 정수』, 340; Thomas C. Oden, *John Wesley's Teachings 2, Christ and Salvation*, 장기영 역,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2. 그리스도와 구원』 (부천: 웨슬리르네상스, 2021), 449-467.

72)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2. 그리스도와 구원』, 465; 김영택, 『웨슬리신학과 사중복음』, 62-63.

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편들은 특히 기도, 성서연구, 성만찬 참여, 금식” 등이다.⁷³⁾

IV. 요한 웨슬리의 성서윤리의 특징

앞에서 웨슬리의 성서윤리방법론을 살펴보았다. 그의 윤리 사상은 단순한 규범 체계라기보다 구원 이해와 성서 해석, 그리고 신앙의 실천이 긴밀하게 결합된 독특한 윤리적 형태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웨슬리의 성서윤리는 단순히 성경 본문을 충실히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 해석이 삶의 구조와 공동체의 형성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보여주는 실천적 윤리라 할 수 있다.⁷⁴⁾ 이러한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특히 산상수훈 13편 설교를 중심으로 볼 때, 웨슬리의 성서윤리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은총 중심성, 내면성의 급진화, 완전 성화의 지향, 공동체성, 그리고 종말론적 긴장, 보편성과 구체성의 통합 그리고 경건, 행복 추구 그리고 윤리의 통합 등이다.

73) 산상설교 7, 서론, 04, 199(금식); 산상설교 6, III, 11, 192(성만찬); 산상설교 5, IV, 12, 174;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2. 그리스도와 구원』, 471; Kenneth J. Collins, *The Theology of John Wesley*, 이세형 역, 『존 웨슬리의 신학』 (서울: KMC, 2014), 337-434.

74) 산상설교 4, I, 06, 136-137; 오든은 “진정한 신자는 일상의 인간관계에 맞을 더한다. 조금씩 음식의 맛을 내듯, 신자의 거룩한 삶은 다른 사람들의 습관이나 일상에 스며들어, 가정이 깨지고 회복되는 과정이나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 ... 이런 방법으로 모든 인간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통해, 더 넓게는 가족과 사회 질서에 복음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4. 윤리와 사회』, 371.

1. 은총 중심의 윤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웨슬리 성서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윤리가 은총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⁷⁵⁾ 웨슬리는 산상수훈을 율법주의적 윤리 강령으로 읽지 않는다. 그는 율법주의를 거부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동시에 그는 반율법주의도 강력히 비판한다.⁷⁶⁾ 오히려 그는 예수의 말씀을 은총에 의해 가능해진 새로운 삶의 질서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선언에서 웨슬리는 윤리적 행위를 위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론적 상태를 강조한다.⁷⁷⁾ 아마도 이것은 예수의 시대와 비슷하게 웨슬리가 당시 설교할 때 그의 설교를 들었던 대상이 “광부나 가난한 사람 들이나 청소년들”이었다는 당시 상황도 고려되었을 것이다.⁷⁸⁾ 심령의 가난은 인간의 공로를 비우는 상태이며, 바로 그 비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한다. “실사 이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히 준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난날에 저지른 한 가지의 죄도 말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그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⁹⁾ 산

75) 이를 위해 Fred Sanders, *Wesley on the Christian Life: the Heart Renewed in Love*, 이근수 역,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아바서원, 2015), 231-264; 한기채, “웨슬리와 윤리,”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의 현대적 이해』 (과주: 공감마을, 2018), 428-455. 등을 참고하라.

76) 산상설교 5, III, 01-03, 159-161;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4. 윤리와 사회』, 512-553.

77) 산상설교 1, I, 07, 79.

78) 허천희,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 395; 정인교는 이에 덧붙여 이렇게 설명한다. “계층적으로 대개 깡패 창녀 광부 등 사회 하층민들, 종교적으로는 성공회로부터 여러 종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수감자 군인들과 지역에 따라서는 중산층 등 매우 다양했다.” 정인교, “설교자로서의 웨슬리와 그의 설교에 관한 연구,” 303-335; Howard A. Snyder, *The Radical Wesley. The Patterns and Practices of a Movement Maker* (Nashville: Seedbed Publishing, 2014), 37-45.

상수훈 설교 전반에서 웨슬리는 외적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웨슬리는 “기독교는 이교의 도덕이 끝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한다.⁸⁰⁾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만일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⁸¹⁾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며, 거룩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⁸²⁾ 믿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야 한다는 그의 확신은 산상수훈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행함이 없는 믿음,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 가슴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기 못하는 믿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믿음, 앞 장들에서 설명한 믿음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은 복음의 믿음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며, 영광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⁸³⁾ 이처럼 윤리는 은총 이전의 조건도 아니고, 선택적 부가물도 아니다. 그것은 은총이 실제로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필연적 증거이다.⁸⁴⁾ 이 구조는 웨슬리 성서윤리의 핵심을 이룬다. 그에게 윤리는 구원론과 분리되지 않는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연속적 과정 안에 있으며, 성령의 선행 은총이 “개개인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능동적 존재로 만들어”⁸⁵⁾ 인간의 응답을 가능하게 한

79) 산상설교 1, I, 06, 78; 산상설교 1, I, 13, 83.

80) 산상설교 1, I, 09, 80.

81) 산상설교 9, 서론, 20, 258; 산상설교 12, III, 01, 301; 산상설교 12, III, 14, 309; 웨슬리는 사랑에 대해 산상설교 2, III, 01-18, 99-108에서 설명한다; 산상설교 3, I, 01, 110.

82) 산상설교, 5, III, 09, 164.

83) 산상설교 13, III, 05, 322-323.

84) 산상설교 3, II, 01, 117; 산상설교 3, II, 05, 119; 산상설교 4, I, 08, 137-138; 산상설교 9, 서론, 20, 258; John Wesley/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II,” 379-383; Kenneth J. Collins, 『성경적 구원의 길. 존 웨슬리 신학의 정수』, 31-24; 김영택, 『웨슬리신학과 사중복음』, 60-61. “그러나 케네스 콜린스는 주장하기를 신인 협력적 모델이 종교개혁으로부터의 통찰을 통해 얻은 웨슬리의 신학적 이해와는 잘 어울리지 않으며, 웨슬리의 신학 전체의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활동을 위한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그러기에 인간은 단순한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은총에 응답하는 책임적 존재가 된다. 이 응답의 구체적 형식이 바로 윤리이다.⁸⁶⁾

2. 내면성의 급진화 - 하나님의 형상 이룸

웨슬리의 성서윤리 이해는 그의 핵심 개념인 “마음의 종교”에 기초한다.⁸⁷⁾ 그는 외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적 종교와 내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주관주의적 경건을 동시에 비판한다.⁸⁸⁾ 참된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이며, 이 변화는 반드시 외적 삶으로 표현된다.⁸⁹⁾ 이 점에서 웨슬리에게 윤리는 행위 규칙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중심, 곧 마음의 방향성과 의도성에 관련된다.⁹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 의존성을 자각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전환이 그의 윤리의 출발점이다. 윤리는 그에게 외적 도덕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새롭게 된 마음에서

85) Randy L. Maddox, 『웨슬리 신학 다시보기』, 48. 매닥스는 이런 점에서 웨슬리의 핵심적 주제를 “책임적 은총”이라고 말한다.; 선행 은총에 대해서는 Kenneth J. Collins, 『성경적 구원의 길. 존 웨슬리 신학의 정수』, 70-79을 보라.

86) 산상설교 3, II, 06, 119; 산상설교 4, I, 07-08, 137-138; 산상설교 6, III, 08-10, 188-191; 산상설교 6, III, 12, 192;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신학 vs 웨슬리 신학』, 614.

87) 산상설교 3, I, 03, 111; 산상설교 3, II, 01, 117; 산상설교 5, IV, 13, 175; 산상설교 8, 서론, 01, 222; 또한 웨슬리의 마음의 종교에 대해서는 Fred Sanders,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109-156을 참고하라.

88) 산상설교 3, I, 03, 111.

89) 산상설교 5, IV, 11, 172; 박창훈, 『존 웨슬리, 사회비평으로 읽기』, 132; Leon O. Hynson, *To Reform the Nation-Theological Foundations of Wesley's Ethics*, 이희숙 역, 『웨슬리의 윤리사상』 (서울: 전망사, 1987), 108; 김영일은 “웨슬리에게 개인의 내적 신앙의 확신은 외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생활화로 표출하고, 그래서 사회적 참여로 실현하였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사회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성화의 실증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일, “웨슬리의 신학윤리와 현대목회,” 139-154. 특히 151.

90) 웨슬리는 이것과 관련하여 이 설교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언급한다. 산상설교 6, 서론, 02, 179; 산상설교 6, II, 02, 182.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⁹¹⁾ 그래서 웨슬리는 우선 예수와 말씀의 인간 내면 구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급진적 요청으로 읽는다. 또한 그는 진정한 순수 도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범이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다.⁹²⁾ 살인 금지 계명은 분노와 경멸까지 포함하고, 간음 금지 계명은 욕망의 차원까지 확장된다.⁹³⁾ 그러나 이러한 내면화는 심리주의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존재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⁹⁴⁾ 웨슬리는 마음을 인간 인격의 중심이면서 모든 말과 행실의 원천으로 이해한다.⁹⁵⁾ 그러기에 그에게 윤리적 문제는 단순히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성이다.⁹⁶⁾ 이런 점에서 내면성의 급진화는 윤리를 불가능한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마음이 변화될 때, 행위는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다. 웨슬리의 윤리는 이처럼 이 내적 변화를 강조한다.⁹⁷⁾ 그리고 이것은 웨슬리가 “믿는 사람의 영혼의 심층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룹니다”⁹⁸⁾에서처럼 마음의 종교와 하나님의 형상은 연결된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

91) 산상설교 3, I, 01, 110; 산상설교 6, 서론, 01, 178; 산상설교 8, 서론, 01, 222.

92) 산상설교 10, 서론, 27, 282.

93) 산상설교 2, 서론, 07, 92; 산상설교 5, IV, 07, 170.

94)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변화까지 나아간다. 산상설교 9, 서론, 21, 259. 웨슬리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중심”의 변화를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한다. 김영택은 웨슬리 신학의 해석학적 중심축을 “하나님 형상” 교리로 본다. 김영택, 『웨슬리신학과 사중복음』, 40.

95) 산상설교 8, 서론, 01, 222; 산상설교 8, 해설, 221. 여기서 웨슬리는 인간의 삶의 방향과 행동은 결국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상설교 13, III, 08, 324. 웨슬리는 외적 행위가 없어도 사랑에 반하는 마음의 감정 자체가 이미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96) 산상설교 1, I, 11, 81; 웨슬리는 이것과 관련하여 이 설교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언급한다. 산상설교 6, 서론, 02, 179; 산상설교 6, II, 02, 182.

97) 산상설교 1, I, 11, 81; 산상설교 5, IV, 13, 175; 산상설교 13, III, 12, 325-326.

98) 산상설교 9, 서론, 21, 259.

분이 있다. 웨슬리는 산상수훈 설교에서 기독교를 “사회적 종교”⁹⁹⁾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내면성의 급진화”를 주장하는 웨슬리의 생각과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¹⁰⁰⁾ 그러나 콜린스의 올바른 판단처럼, “이런 식으로 웨슬리를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시대착오일 수 있다.” 오히려 “웨슬리가 비판한 것은 마음의 종교, 곧 내적 종교가 아니고 홀로 남겨지는 종교, 곧 은둔적인 수도원주의 형태의 고독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립된 종교는 내적 종교가 인간의 마음 안에 정착하고 다양한 덕을 수양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한다.”¹⁰¹⁾ 이처럼 웨슬리는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지만, 그것을 사회적 무관심이나 비정치적 경건으로 연결하지 않는다.¹⁰²⁾ 내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외적 행위와 공동체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웨슬리의 성서윤리는 내면과 행위, 존재와 실천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한다.¹⁰³⁾

99) 산상설교 4, I, 01, 134; 이에 대한 웨슬리의 논의는 산상설교 4, III, 01-08, 142-149에 있다.

100) Kenneth J. Collins, *John Wesley: a Theological Journey*, 이세형 역, 『존 웨슬리 훑어보기. 그의 삶과 신학 여정』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6), 204.

101) Kenneth J. Collins, 『존 웨슬리 훑어보기. 그의 삶과 신학 여정』, 204-205.

102) Theodore R. Weber, *Politics in the Order of Salvation*, 391-420.

103) 산상설교 3, II, 05, 118; 산상설교 4, I, 01-09, 134-139; 산상설교 7, 서론, 01, 198; Albert Outler, *Evangelism in Wesleyan Spirit* (Nashville: Tidings, 1971), 25. 아우틀러는 “웨슬리에게 신앙의 본질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 공동체적이다. ...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개혁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아우틀러는 웨슬리의 성화가 사회적 윤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아우틀러는 웨슬리가 개인적, 내면적 신앙이 기본적인지만, 신앙의 증거는 매일의 생활에서 사회적 증거로 나타나야 함을 믿었다고 해석한다. 아우틀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의 관점은 복음이 가시적인 사회적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매는 시들고 낡아진다. ... 매일 생활의 외적 증거는 내면적 신앙의 내적 경험의 필연성이다.”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33-134에서 재인용.

3. “영원한 지혜자로서”¹⁰⁴⁾ 예수를 통한 완전 성화의 지향

웨슬리 성서윤리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기독교적 완전(perfection)에 대한 강조이다.¹⁰⁵⁾ 그는 산상수훈 여러 곳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완전하여야” 한다는 말씀들을 단순한 이상적 권고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실제적 가능성으로 본다.¹⁰⁶⁾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당신도 자비 하십시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까지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¹⁰⁷⁾ 물론 이 완전은 절대적 무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¹⁰⁸⁾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은 사랑의 완전이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인간 삶을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¹⁰⁹⁾ 그는 이것을 점진적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해한다. 이 점에서 웨슬리의 윤리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을 넘어 존재의 재구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은총 안에서 점진적으로 새롭게 창조된다.¹¹⁰⁾ 산상수훈은 이 새로운 창조의 윤리적 구조를 보여준다.¹¹¹⁾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스티븐 롱(D. Stephen Long)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불가

104) 산상설교 1, 서론, 02, 70.

105) 산상설교 1, I, 01, 75.

106) 산상설교 3, III, 13, 129; 산상설교 8, 서론, 27, 241-242; 산상설교 10, 서론, 15, 276.

107) 산상설교 9, 서론, 06, 250; 산상설교 13, III, 10, 325.

108)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2. 그리스도와 구원』, 453.

109) 산상설교 3, I, 01, 110; 산상설교 9, 서론, 20, 258; John Wesley/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6권, “완전에 대하여,” I, 04, 99;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2. 그리스도와 구원』, 458.

110)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2. 그리스도와 구원』, 447-467.

111) 산상설교 1, I, 11, 81; 산상설교 2, II, 03, 96.

능하다고 한다. “한 가지 주제는 웨슬리가 율법에 대한 논의를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부여한 덕들, 은사들, 그리고 팔복을 설명한 이후에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율법 (일반 규칙을 포함하여)은 덕들, 은사들, 그리고 팔복 없이는 전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역시 기독교 정통 교리 안에서 자리 잡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그 영적 깊이를 상실하게 된다. 웨슬리가 주의 산상설교에 관한 설교들에서 먼저 확립하고, 또한 율법에 관한 설교들에서 다시금 되돌아가는 핵심 요점은 바로 예수 자신이 영원한 율법이며, 삼위일체의 제2위격, 곧 이제 육신이 된 분이라는 사실이다.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고 동시에 한 위격이라는 칼케돈 신조의 문법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만 그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통찰만이 우리의 시선을 그 올바른 목적을 향해 이끌며, 우리의 성향과 정념을 자연적 질서와 초자연적 질서 안에서 동시에 마땅히 질서지워지도록 한다.”¹¹²⁾ 그래서 웨슬리는 그의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산에서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지에 집중한다. “그는 창조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로서 그의 왕권은 영원하시며, 동시에 그는 입법자로서 그가 제정한 모든 법을 어느 때나 실시하시어 구원도 하시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 그는 천부의 영원한 지혜자로서 인간의 근본과 그 구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상호간의 관계 등을 다 아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의 관계도 아십니다.”¹¹³⁾ ... 그의 가르치심은 인간 이상이요, 어느 피조물에 비길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존재의 존재이신 여호와, 영원한 자존자, 최상자, 영원

112) D. Stephen Long, *John Wesley's Moral Theology*, 129.

113) 산상설교 1, 서론, 02, 70.

히 복되심,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¹¹⁴⁾ 이렇듯 ‘영원한 지혜자’ 예수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부름받게 되는 영원한 율법이다. 그를 아는 것은 만물의 관계를 아는 것이다.”¹¹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나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의 큰 기초”이다.¹¹⁶⁾ 그래서 웨슬리는 산상설교에서 예수의 권위를 집중하며, 예수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성화의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¹¹⁷⁾

4. 윤리 형성의 사회적-공동체적 구조

웨슬리의 성서윤리는 사회적-공동체적 차원을 가진다. 우선 “온유의 덕”을 설교하는 부분에서 웨슬리는 이 덕을 개인,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한다.¹¹⁸⁾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은 개인적 경건의 칭찬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 소명을 가리킨다. 그는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 경제적 정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마음의 거룩함은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난다.¹¹⁹⁾ 레온 힌슨(Leon O. Hynson)은 이를 “웨슬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천의 삶의 스타일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올바르게 평가한다.¹²⁰⁾ 그래서 웨슬리는 기독교를 “사회적 종교”라고 말하며, “사회 없이 종교는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강조한다.¹²¹⁾ 따라서 성서윤리는 개인적

114) 산상설교 1, 서론, 09, 74.

115) D. Stephen Long, *John Wesley's Moral Theology*, 142.

116) 산상설교 8, 서론, 28, 242.

117) 산상설교 4, 서론, 01, 132.

118) 산상설교 2, 서론, 04, 91; 산상설교 4, I, 03, 135.

119) 산상설교 4, II, 02, 140.

120) Leon O. Hynson, 『웨슬리의 윤리사상』, 18.

121) 산상설교 4, I, 01, 134; 산상설교 4, I, 06, 137.

내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적 질서를 재구성하며,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다.¹²²⁾ 더 나아가 글로벌적인 차원까지 확장된다: “실상 그는 세계 시민의 하나로서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곧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며, 무엇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며 인간 세상에 평화와 선위를 고취하기를 힘씁니다.”¹²³⁾ 이런 점에서 성서는 단지 개인의 도덕을 형성하는 책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공동체를 창조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¹²⁴⁾ 비록 “웨슬리가 은둔종교에 반대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회적 성격’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더라도, 웨슬리의 사상에서 사회란 단지 ‘개인의 성숙을 위해 사용하기 편리한 장치’일 뿐이다”¹²⁵⁾라는 평가도 있지만, 산상수훈 설교의 청중이 가까운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는 것을 보면,¹²⁶⁾ 웨슬리의 성서윤리가 공동체적 차원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개인적 성화와 공동체적 구조는 분리되지 않는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개인의 내면적 수양을 위한 교본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규정하는 선언이기 때문이다.¹²⁷⁾ 따라서 그의 방법론은 설교 중심적이며, 동시에 공동체 형성적이

122) “웨슬리가 가르친 행복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늘과 영원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일시적 행복이란 참된 행복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자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신앙이 그들의 눈을 하늘과 영원에 고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행복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은 신자로 거룩하고 이타적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자극이 된다. ... 웨슬리의 기독교윤리에서 하늘에 대한 관심과 이타주의와 행복 추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신학 vs 웨슬리 신학』, 609; 산상설교 6, III, 11, 192.

123) 산상설교 2, III, 13, 104-105; 산상설교 6, III, 10, 191.

124) 산상설교 6, III, 11, 192; Michael D. Simants, “*The Ethics of Perfection: Exploring the Ethical Implications of Wesley's Doctrine of Perfection*,” *Studies in Christian Ethics* 37.1(2024), 111-121.

125)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신학 vs 웨슬리 신학』, 605. José Míguez Bonino, “Wesley's Doctrine of Sanctification from a Liberationist Perspective,” *Sanctification and Liber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1), 55에서 재인용.

126) 산상설교 1, 04, 71-72.

다.¹²⁸⁾ 설교는 웨슬리에게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라, 윤리적 공동체를 생성하는 사건이 된다. “우리가 참된 종교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외부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만일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인이 빛이라 함은 그의 그리스도적 품격과 생활을 아울러 의미하신 것입니다.”¹²⁹⁾ 김민석은 “웨슬리 관점에서 참된 종교란 창조자이시며 후원자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는 하나님 사랑과 동료 피조물들을 향한 선행을 수반하는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같은 선상에서 주장한다.¹³⁰⁾ 아우틀러도 “웨슬리에게 신앙의 본질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 공동체적이다. ...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개혁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¹³¹⁾고 강조한다. 그는 웨슬리의 성화가 사회적 윤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나의 관점은 복음이 가시적인 사회적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매는 시들고 낡아진다. ... 매일 생활의 외적 증거는 내면적 신앙의 내적 경험의 필연성이다.”¹³²⁾

5. 종말론적 긴장 - 미래에 근거하여 현재를 변형하는 행위

웨슬리 성서윤리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이해된다. 산상수훈의 복 선언은 단지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변형시키는 약속이다. 웨슬리는 산상수훈 설교 중 “애통하는

127) 웨슬리는 이것에 대해서 산상설교 4, 131-151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128) Martin Schmidt, *Christsein als Ganzes*, 39.

129) 산상설교 4, II, 02, 140.

130) 김민석,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계몽주의 시대 속에서의 존 웨슬리,” 『한국교회사학회지』 46(2017), 100(73-110).

131) Albert Outler, *Evangelism in Wesleyan Spirit*, 25.

132)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33-134에서 재인용.

사람은 복이 있나니”를 설교하면서, 이것이 갖는 현재적, 미래적 의미를 강조한다. “이러한 확고부동의 믿음의 확증은 모든 회의와 공포를 추방하고, 영원한 기업의 소망과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¹³³⁾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서 구절을 해석하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설교한다. “땅을 얻을 것이다”라는 어구에는 더 깊은 뜻이 있으니 여기에는 그들이 장차 ‘의가 거하는 새 땅’에서 더 높은 자리, 즉 성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서술한 기업의 계승도 포함된다.¹³⁴⁾ ... 그리고 어디에서나 누구에서나 선이 발견되는지 이것은 그의 기쁨의 원천과 영광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실상 그는 세계 시민의 하나로써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곧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며, 무엇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며 인간 세상에 평화와 선의를 고취하기를 힘씁니다.”¹³⁵⁾ 이는 하나님 나라를 단순한 미래 사건으로만 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실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론적 소망 속에서 실천된다. 현재의 순종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전조이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 차원은 윤리를 낙관주의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의 한계를 직시하게 한다.¹³⁶⁾ 그러나 동시에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우리는 미래의 약속에 근거하여 현재를 변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¹³⁷⁾

133) 산상설교 1, II, 04, 86; 산상설교 1, I, 11, 82.

134) 산상설교 2, 서론, 13, 95.

135) 산상설교 2, III, 13, 104.

136) 산상설교 13, III, 12, 326; 산상설교 1, I, 11, 82.

137) 산상설교 6, III, 09-10, 190-191; 산상설교 11, III, 04, 293; Thorsten Dietz, Tobias Faix, *Transformative Ethik*, 148; “하늘에 참여하는 것이 지상에서의 삶을 바꾼다. 역설적으로 내세성만이 이 세상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을 보증한다.” Hans Boersma, *Heavenly Participation*, 박세혁 옮김, 『천상에 참여하다. 성례전적 존재론 되찾기』 (서울: 한국기독교학회출판부, 2021), 22.

6. 경건, 행복 추구 그리고 윤리의 통합

웨슬리에게 경건, 행복 추구 그리고 윤리는 분리될 수 없다.¹³⁸⁾ 그는 기도, 금식, 구제라는 경건의 행위를 산상수훈 안에서 해석하면서도, 그것을 외적 형식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관계는 이웃 사랑(구제)으로 표현된다.¹³⁹⁾ 또한 웨슬리에게 행복은 하늘과 영원을 추구하는 것, 즉 경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오든은 “팔복은 복된 삶에 관한 격언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말한다.¹⁴⁰⁾ 웨슬리에게 ‘행복’과 ‘복되다는 것’은 동의어로 사용되기에, ‘행복한 것은 복된 것이고, 복된 것은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¹⁾ 이런 생각은 특히 웨슬리의 산상설교 중 팔복설교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중에서 인간 행복의 기초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외적 행복과는 비록 거리가 멀지라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참된 행복의 첫걸음이 되는 가난한 마음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¹⁴²⁾ 이런 “마음의 가난은 죄책감과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생깁니다. ... 우리가 은혜 아래서 성장할수록 우리 마음의 절망적인 사악성도 더욱

138) Rebekah L. Miles, “Happiness, Holiness, and the Moral Life,”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Wesley*, ed. Randy L. Maddox and Jason E. Vic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207-224; John Wesley/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1권, 설교 7,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1, 10, 139. “참 종교,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르게 향하는 마음은 성결과 함께 행복도 포함합니다.”

139) 산상설교 7, IV, 07, 220. 웨슬리는 금식에 구제하는 일을 첨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상설교 10, 서론, 21, 280; 산상설교 2, III, 13, 104. 웨슬리는 여기서 ‘진리와 정의’, ‘행복, 영광과 평화’를 연결하고 있다; Theodore R. Weber, *Politics in the Order of Salvation*, 410.

140)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4. 윤리와 사회』, 314.

141) Thomas C. Oden,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4. 윤리와 사회』, 320.

142) 산상설교 1, I, 02, 76.

심각하게 느껴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원수가 되어, 우리가 의와 참된 성화된 성품으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¹⁴³⁾ 이처럼 웨슬리에게 경건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행복 추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경건과 행복 추구는 윤리학과 관계되어 있다.’¹⁴⁴⁾ 김민석은 이것을 웨슬리의 생각에 따라 “성결과 행복”으로 연결하면서 강조하고 있다.¹⁴⁵⁾ 더 나아가 웨슬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구절을 설교하면서 경건과 생태윤리의 연결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뵈니다.”¹⁴⁶⁾ 그리고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만물을 관찰함에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가 친히 그중에 계시어 유지, 보전하시며 그 속에서 그것들이 동작하게 하시고 계신 까닭으로 하나님은 참된 의미에서 우주의 영이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¹⁴⁷⁾ 그리고 웨슬리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에게 비치는 태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언급한 후에,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근면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¹⁴⁸⁾ 또한 웨슬리는 “그의 자비는 그의 모든 창조물에 골고루 미치십니

143) 산상설교 1, I, 13, 83.

144) 산상설교 3, II, 04, 118; John Wesley/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1권, “대심판,” 서론, 03, 298.

145) 산상설교 8, 서론, 05, 224; 김민석,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계몽주의 시대 속에서의 존 웨슬리,” 92-103(73-110). “성결과 행복의 회복은 ‘참된 종교’의 목적이며 ‘참된 종교’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따라서 웨슬리 신학 안에서 행복의 위치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할 때, ‘참된 종교’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는 것은 ‘성결과 행복’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 Fred Sanders,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132.

146) 산상설교 3, I, 06, 113; 산상설교 1, 서론, 02, 70.

147) 산상설교 3, I, 11, 116; 산상설교 6, III, 06-07, 186-188; 웨슬리의 일반적인 생태신학을 위해서는 박창훈, 『존 웨슬리, 사회비평적으로 읽기』, 69-93를 참고하라.

148) 산상설교 6, III, 12, 192; 산상설교 9, 서론, 06, 250.

다. ... 그의 눈은 창조물 전체를 꿰뚫어 보십니다”라고 말한다. 그런 후에 “그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어 모든 공간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라고 언급한 후에 이런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그를 찬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찬미가 곧 생태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¹⁴⁹⁾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이런 연결을 이렇게 진술한다. “여러분은 행복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 이렇게 될 때 모든 피조물은 우리를 위대하신 창조주께로 인도하며, 이 땅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 그들은 성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지는 중에 만물을 통하여, 아니 만물을 초월하여 그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¹⁵⁰⁾ 따라서 웨슬리 성서윤리는 내적 경건, 행복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 더 나아가 생태적 시각을 통합하고 있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본 논문은 요한 웨슬리를 성서를 통해 윤리적 현실을 해석하고 신자의 존재 방식과 공동체의 삶을 형성하는 “성서윤리학자”로 재조명하였다. 특히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을 다룬 연속 설교 13편(표준설교 21-33)을 중심으로, 웨슬리의 성서윤리 이해, 방법론, 그리고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성서가 단순한 윤리의 ‘규범 목록’이 아니라 복음의 구조 안에서 인간 존재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사건의 증언이라는 관점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성서윤리학자로서의 웨슬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체적인 설교와 저작을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차후의 연구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산상수훈을 설교를 통해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 즉

149) 산상설교 6, III, 05-06, 186-187.

150) 산상설교 8, 서론, 21, 237.

성서윤리학자로서의 웨슬리의 중요한 면목을 살펴보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웨슬리에게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과 삶의 형식에 대한 총체적 묘사이며, 은총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존재가 드러내는 윤리적 구조이다.¹⁵¹⁾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기능하지 않으나, 은총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필연적 표지로서 나타난다. 이때 우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외적 규칙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이라는 인격의 중심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라는 존재론적 차원에 자리한다. 웨슬리는 형식주의적 외적 종교와 주관주의적 내면 경건을 동시에 비판하며, 내적 성향과 외적 행위의 통일, 칭의와 성화의 연속성, 그리고 제자도의 실천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런 산상수훈의 요구가 현실 불가능한 이상으로 남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자율적 능력이 아니라 선행 은총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가능해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웨슬리의 성서윤리는 개인의 내면에 갇히지 않는다. 신앙의 본질이 내적이라면 그 증거는 사회적이며, 교회는 설교와 성례, 공동체적 훈련을 통해 윤리적 공동체를 생성하는 장으로 이해된다. 이 모든 논의는 성서윤리를 교리의 부록이나 도덕적 권면으로 축소해 온 관행을 비판하고, 성서 텍스트의 고유한 신학적, 실천적 구조가 윤리적 실재를 산출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웨슬리의 성서윤리학적 관점은 한국 교회에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성서윤리를 ‘명령의 목록’이나 ‘도덕적 정답’으로 환원하는 해석 습관을 교정한다. 산상수훈은 외적 규범을 제공하는 텍스트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론과 삶의 질서를 선포하는 말씀이

151) 김상기,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에 나타난 성품 윤리-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153-194; 한기채, “웨슬리와 윤리,” 428-455.

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성서를 윤리적 근거로 호출할 때, 본문에서 규범을 추출해 적용하는 방식에 앞서, 복음이 무엇을 창조하고 어떤 삶의 형식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해석학적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¹⁵²⁾ 둘째, 은총과 윤리의 분리를 극복하는 구원론적 통합을 요청한다. 한국 교회는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적 도덕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값싼 은혜의 반율법주의로 기울어 왔다. 웨슬리가 보여주는 구조는 윤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사랑의 행위와 거룩함의 열매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통합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여 신앙을 선언적 신분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구원을 실제적 변형의 과정으로 재사유하게 한다. 셋째, 윤리의 중심을 행위 규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에 두는 내면성의 급진화가 요청된다. 웨슬리는 살인과 간음, 맹세와 보복의 문제를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분노, 욕망, 진실성, 사랑이라는 내적 성향의 차원에서 다룬다. 이는 한국 교회 윤리가 외적 경건 행위나 사회적 도덕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자의 동기 구조와 욕망의 형성, 성품의 변화를 포함하는 ‘인격 윤리’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적 종교”로서의 교회 이해가 회복되어야 한다. 웨슬리에게 내적 종교는 은둔적 고독 종교가 아니라, 내적 성화가 실제로 뿌리 내리고 덕이 훈련되는 사회적 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개인의 영성 체험을 고립된 내면으로 방치하거나, 반대로 사회 참여를 영성의 대체물로 삼는 양극단을 넘어, 설교, 성례, 공동체 훈련을 통해 ‘윤리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산상수훈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이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 소명이며,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되 그 근거를 복음의 내적 변형에서 끌어내야 한다. 결국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는 성서윤리를 ‘가능한 삶’으로 제시하는 데서 결정적 의미를

152) Thorsten Dietz, Tobias Faix, *Transformative Ethik*, 131-140.

지닌다. 산상수훈은 인간 능력을 넘어서는 이상이지만, 은총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가 살아내는 현실적 구조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가 웨슬리를 성서윤리학적으로 다시 읽는 일은 성서를 윤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복음이 교회와 신자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상상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은 윤리와 구원, 내면과 실천,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해 온 오랜 분열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 안에서 구체화하는 교회의 공적 증언으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석.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계몽주의 시대 속에서의 존 웨슬리.” 『한국교회 사학회지』 46(2017), 73-110.
- 김삼기.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에 나타난 성품 윤리-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4(2022), 153-194.
- 김영일. “웨슬리의 신학윤리와 현대목회.” 협성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과 오늘날의 교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7, 139-154.
- _____. “웨슬리의 신학윤리와 현대목회,” 협성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과 오늘날의 교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7, 139-154
- 김영택. “존 웨슬리의 인간학-하나님의 형상과 도덕법.” 『신학과 선교』 38(2011), 39-65.
- _____. 『웨슬리신학과 사중복음』. 용인: 코디엠, 2021.
- 김흥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박창훈. 『존 웨슬리, 역사비평으로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_____. 『존 웨슬리, 사회비평으로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웨슬리신학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조종남 박사의 소논문들』. 서울: 선교햇불, 2022.
- 오성욱. “존 웨슬리의 사변형 원리와 맥클렌돈의 침례교 비전의 대화 — 복미 감리교와 침례교의 신학 방법론과 강조점을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49(2017), 135-167.
- 윤철원.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 20과 신약학의 성찰.”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의 현대적 이해』. 파주: 공감마을, 2018, 98-125.
- 이선희. “John Wesley의 산상수훈 설교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37(2013), 249-282.
-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신학 vs 웨슬리 신학』. 부천: 웨슬리르네상스, 2019.
- 정계현.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에 나타난 마음의 종교에 대한 연구-목회상담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97(2025), 333-357.
- _____. “웨슬리의 사변형과 목회상담.” 『목회와 상담』 38(2022), 266-292.

- 정인교, “설교자로서의 웨슬리와 그의 설교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 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의 현대적 이해』. 파주: 공감마을, 2018, 303-335.
- 조종남, 『요한 웨슬레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12.
- 한기채, “웨슬리와 윤리.”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의 현대적 이해』. 파주: 공감마을, 2018, 428-455.
- 허천희,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홍성욱, “존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실천적 원리와 실제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 56(2017), 195-221.
- 홍성혁, “존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실천적 원리와 실제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 56(2017), 195-221.
-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이창우 · 김재홍 · 강상진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7.
- Boersma, Hans, *Heavenly Participation*. 박세혁 역, 『천상에 참여하다. 성례전적 존재론 되찾기』.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21.
- Bonino, José Míguez, “Wesley’s Doctrine of Sanctification from a Liberationist Perspective.” *Sanctification and Liber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1.
- Collins, Kenneth J. *Scripture Way of Salvation: the Heart of John Wesley’s Theology*. 장기영 역, 『성경적 구원의 길. 존 웨슬리 신학의 정수』. 서울: 웨슬리르네상스, 2023.
- _____. *The Theology of John Wesley*. 이세형 역, 『존 웨슬리의 신학』. 서울: KMC, 2014.
- _____. *John Wesley: a Theological Journey*. 이세형 역, 『존 웨슬리 훑아보기. 그의 삶과 신학 여정』.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6.
- Dietz, Thorsten, Tobias Faix, *Transformative Ethik. Wege zum Leben. Einführung in eine Ethik zum Selberdenk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sgesellschaft GmbH, 2021.
- Fischer, Johannes, “Die Bedeutung der Bibel für die Theologische Ethik.”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 55(2011), 262-273.
- Honecker, Martin, *Einführung in die Theologische Ethik*. 오희천 역, 『신학윤리학』. 서울: 중문화사, 2024.

- Hynson, Leon O. *To Reform the Nation-Theological Foundations of Wesley's Ethics*. 이희숙 역. 『웨슬리의 윤리사상』. 서울: 전광사, 1987.
- Kant, Immanuel.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 파주: 아카넷, 2024.
- Long, D. Stephen. *John Wesley's Moral Theology. The Quest for God and Goodness*. Nashville: Kingswood Books, 2005.
- Maddox, Randy L. *Rethinking Wesley's Theology*. 이후정 역. 『웨슬리 신학 다시 보기』.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0.
- Marquardt, Manfred. *Praxis und Prinzipien der Sozialethik John Wesleys*. 조정철 역. 『존 웨슬리의 사회윤리』. 서울: 보문출판사, 1992.
- Meadors, Gary T. *Four Views on Moving beyond the Bible to Theology*. 윤석인 역.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 Miles, Rebekah L. "Happiness, Holiness, and the Moral Life."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Wesley*. ed. Randy L. Maddox and Jason E. Vic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207-224.
- Oden, Thomas C. *John Wesley's Teachings 1. God and Providence*. 장기영 역.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1. 하나님과 섭리』. 부천: 웨슬리르네상스, 2021.
- . *John Wesley's Teachings 2. Christ and Salvation*. 장기영 역.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2. 그리스도와 구원』. 부천: 웨슬리르네상스, 2021.
- . *John Wesley's Teachings 4. Ethics and Society*. 장성결 역.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04. 윤리와 사회』. 부천: 웨슬리르네상스, 2020.
- Outler, Albert. *Evangelism in Wesleyan Spirit*. Nashville: Tidings, 1971.
- Rabens, Volker. "The Bible and Ethics: Pathways for Dialogue." *In die Skriflig* 51(2017), 1-12. <https://doi.org/10.4102/ids.v51i3.2246>.
- . "Inspiring Ethics: A Hermeneutical Model for the Dialogue between Biblical Texts and Contemporary Ethics." in *Key Approaches Biblical Eth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ed. Volker Rabens, Jacqueline Grey and Mariam Kamell Kovalishyn. Leiden and Boston: Brill, 2021, 80-126.
- Rodes, Stanley J. *From Faith to Faith. John Wesley's Covenant Theology and the Way of Savation*. Oregon: Pickwick Publicatins, 2013.
- Sanders, Fred. *Wesley on the Christian Life: the Heart renewed in Love*. 이근수 역.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아바서원, 2015.

- Schmidt, Martin. *Christsein als Ganzes. John Wesley Leben und Werk*. Bd. 3. Zürich: Gotthelf Verlag, 1988.
- Simants, Michael D. "The Ethics of Perfection: Exploring the Ethical Implications of Wesley's Doctrine of Perfection." *Studies in Christian Ethics* 37,1(2024), 111-121.
- Snyder, Howard A. *The Radical Wesley. The Patterns and Practices of a Movement Maker*. Nashville: Seedbed Publishing, 2014.
- Thorsen, Donald A. D. *The Wesleyan Quadrilateral*. Lexington: Emeth Press, 2005.
- Tyson, John R. *The Way of the Wesleys. A Short Introduction*.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4.
- Wall, Robert W. "Wesley as Biblical Interpreter,"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Wesley*. ed. Randy L. Maddox and Jason E. Vic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13-128.
- Watt, Jan van der. "Reading the New Testament from an Ethical Perspective: A Comprehensive Approach," in *Key Approaches Biblical Eth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ed. Volker Rabens, Jacqueline Grey and Mariam Kamell Kovalishyn. Leiden and Boston: Brill, 2021, 288-323.
- Weber, Theodore R. *Politics in the Order of Salvation. Transforming Wesleyan Political Ethic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 Wesley, Joh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s 1-4. Sermons. ed. Albert Outl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 _____.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1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5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제6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Wiley, H. Orton and Paul T. Culbertso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전성용 역. 『웨슬리안 조직신학』. 파주: 세북, 2016.

Wynkoop, Mildred Bangs. "A Hermeneutical Approach to John Wesle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6.1(1971), 13-22.

Zehnder, Markus. "Reading Biblical Texts Ethically: A Discussion of Ruben Zimmermann's Method of 'Implicit Ethics' from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in *Key Approaches Biblical Eth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ed. Volker Rabens, Jacqueline Grey and Mariam Kamell Kovalishyn, Leiden and Boston: Brill, 2021, 50-64.

Zimmermann, Ruben. "How to Read Biblical Texts Ethically: The New Method of Implicit Ethics for Analyzing Biblical Ethics," in *Key Approaches Biblical Eth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ed. Volker Rabens, Jacqueline Grey and Mariam Kamell Kovalishyn, Leiden and Boston: Brill, 2021, 15-20.

_____. "The 'Implicit Ethics' of New Testament Writings: A Draft on a New Methodology for Analysing New Testament Ethics," *Neotestamentica* 43.2(2009), 399-423.

논문투고일: 2026년 06월 22일

심사개시일: 2026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6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요한 웨슬리를 성서를 통해 윤리적 현실을 해석하고 신자의 존재 방식과 공동체의 삶을 형성하는 “성서윤리학자”로 재조명한 것이다. 특히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을 다룬 그의 연속 설교 13편(표준설교 21-33)을 중심으로, 웨슬리의 성서윤리 이해, 방법론, 그리고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성서가 단순한 윤리의 ‘규범 목록’이 아니라 복음의 구조 안에서 인간 존재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사건의 증언이라는 관점을 부각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웨슬리를 성서윤리학자로 다시 읽는 일은 성서를 윤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복음이 교회와 신자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상상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은 윤리와 구원, 내면과 실천,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해 온 오랜 분열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 안에서 구체화하는 교회의 공적 증언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제어: 요한 웨슬리, 성서윤리, 산상수훈, 윤리, 한국 교회
